전남 해상풍력 2.6GW 추가 허가…30GW 목표 순항

신안 6곳·여수 1곳…총 21.3GW로 늘어
전국 61% 점유…에너지기본소득 탄력

2.6GW 규모의 전남 해상풍력 7개 사업이 신규 발전허가를 획득했다. 전남지역 전체 해상풍력 발전허가가 21.3GW로 늘면서 전남도의 30GW 해상풍력 발전 구상이 순항하고 있다.

전남도는 30일 "지난 27일 제313차 산업부 전기위원회 발전사업 심의 결과, 전남 서해안 해상풍력 7개 사업 2.6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7곳은 신안 블루자은, 블루임자, 블루신의, 블루비금1·2, 신안 케이윈드파워, 여수 이순신1이다.

크레도 오프쇼어에서 신청한 신안 블루사업 5건은 각각 400MW 발전 용량으로 합계 2GW다. KCH의 신안 케이윈드파워는 323MW, 딥윈드오프쇼어(DWO)의 여수 이순신1은 발전 용량 345MW 규모로 신안과 여수 해상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로써 전남은 기존에 허가받은 18.7GW에 이번 심의를 통과한 2.6GW 규모를 더해 총 21.3GW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30GW 목표 달성을 눈앞에 뒀다.

특히 전국 발전허가량 34.8GW의 61%를 차지하는 규모로 전남이 해상풍력 최적지임을 재확인했다.

전남 시·군별로는 여수 9GW, 고흥 4GW, 영광 5GW, 해남 0.3GW, 진도 2.3GW, 완도 1.2GW, 신안 8.2GW의 해상풍력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전기위원회 발전사업 허가로 총 보급 목표 30GW 실현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번 신규 허가사업 중에는 신안 해상풍력 3.2GW 집적화단지 사업에 해당하는 곳도 1개 포함됐다. 집적화단지 10개 사업 중 한전에서 풍황계측 중인 2개 사업을 제외하면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한 8개 사업 전부 허가를 획득한 셈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인공지능(AI)시대에는 재생에너지가 산업의 쌀인 만큼 세계가 주목하는 해상풍력 중심지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새 정부의 강력한 재생에너지 보급 의지를 환영한다"며 "해남 AI 슈퍼클러스터 조성 등 전남에서 생산한 전력을 전남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를 실현하는 한편, 에너지 기본소득 추진에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18-19일 이틀간 여수엑스포 컨벤션에서 전국 최초로 해상풍력 산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전남 동부권 13GW 해상풍력 비전 선포와 에너지 기본소득·기자재 공급망 구축 업무협약, 기자재 업체와 발전사 간 상담의 장을 마련하는 등 해상풍력 산업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재정 기자

대한민국 골목경제 1번지 선포식 대한민국 골목경제 1번지 선포식이 30일 광주 서구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려 강기정 시장과 김이강 서구청장, 시장 상인, 시민들이 함께 상징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김애리 기자·조영권 인턴 기자

"폭염 도민 안전 확보 신속 대응"

金지사, 대응 체계 전면 점검 지시
위기단계 심각↑…취약층 집중관리

김영록 전남지사는 30일 폭염 대응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시·군과 협력해 도민 생명과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전남지역에는 지난 27일 첫 폭염특보가 발효된 이후 22개 시·군에 폭염특보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또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전남지역 온열질환자는 24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전남도는 폭염 위기 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했다. 상황관리, 의료·방역 등 총 5개 반 12개 부서를 중심으로 시·군과 협력해 예방 대책을 강화하고 각종 비상 상황에 대비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독거노인, 장애인 등 폭염 취약계층 안부 확인과 건강수칙 안내 ▲건설현장, 야외작업장, 논밭 등에 대한 현장 예찰 강화와 맞춤형 집중 관리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확대 ▲폭염 대비 농·축·수산 재해보험 가입 독려 ▲재난안전문자, 마을방송 등 모든 가용 매체를 활용한 폭염 국민행동요령 수시 홍보 등을 지시했다.

특히 경로당 에어컨 가동에 필요한 냉방비 선제 지원과 함께, 축사 지붕 열차단제 시공과 양식장 액화산소 공급기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가 적기에 지원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나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재정 기자

광주시, 나주 SRF 운영사와 중재절차 진행

2천100억 손배 요구 공공적사안 전환
이귀순 시의원 "시민 혈세 낭비 위기"
市 "중재 종료·소송 전환 제안 상태"

광주시가 나주 SRF 운영사와 운영비용 중재절차를 진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운영사 측의 2천억원대 손해배상 중재 요구에 광주시는 공공적 사안으로 전환했다고 보고 중재 종료와 소송 전환을 제안해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광주시의회 이귀순 의원은 30일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SRF 분쟁 중재 수용, 결국 시민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나'를 주제로 긴급 현안 질문을 했다.

광주시는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시설(SRF) 합작법인 청정빛고을과 나주 열병합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절차를 진행하던 중 운영사인 포스코이앤씨 측으로부터 2천100억원을 배상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주민 반대로 열병합발전소 가동이 중단돼 매출 감소를 겪은 청정빛고을은 광주시에 사용료 인상을 요구했으나 협의가 불발돼 이번 중재로 이어졌다.

이 의원은 "시민 혈세 수천억원이 걸려 있음에도 시는 이 사안을 시의회나 시민과의 공개적 논의 없이 비공개 중재 절차로 진행해왔다"며 "광주시가 소송이 아닌 중재를 수용한 결정 과정의 정당성, 중재 합의 과정에서 배상 산정 기준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설정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어떤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했는지 알 수 없는 행정 결정으로 무려 2천억원이 넘는 시민 혈세를 낭비할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중재 합의를 하게 된 배경이나 검토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어떠한 위법 행위는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분쟁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 중재를 선택했으나 포스코이앤씨 측이 신뢰를 저버리고 신청금액을 78억원에서 27배 증가한 2천100억원으로 과도하게 변경해 제시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위기 및 시민 세금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공공적 사안으로 상황이 변화됐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또 "법원의 재판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6월 청정빛고을과 중재업무를 위임받아 진행 중인 포스코이앤씨에 중재 절차를 합의에 의해 종료하고 법원의 재판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제안했다"며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시민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중재 자체가 비공개가 원칙이다 보니 시의회에 알리지 않은 것"이라며 "포스코이앤씨의 행위는 기업의 이윤 추구라는 매우 부당하고 잘못된 행위"라고 비판했다. /변은진 기자

▶1면 '광주세계양궁' 서 계속

안산은 "이제 실업 1.5년 차라 부족한 게 너무 많다. 팀에서 굉장히 지원을 잘 해주고 있고 다른 선수들이 많이 부러워한다. 그만큼 감사한 마음을 갖고 더욱 노력해야겠다고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프레 대회로 치러진 제43회 대통령기양궁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2025 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와 대한양궁협회도 흥행 분위기 조성과 함께 경기장 운영, 관람 환경 등 행사 전반에 대한 사전 점검을 마무리했다.

사전 점검차 광주를 찾은 장영술 대한양궁협회 부회장은 "2년마다 열리는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결승전은 그 도시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뜻 깊은 명소에서 치러져 왔다"며 "광주 대회도 민주·인권·평화의 광주 정신을 간직한 역사적 장소인 5·18민주광장에서 치러져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장 부회장은 또 "세계양궁연맹이 현지 실사에서 우려한 관중 동원 문제도, 직접 프레 대회를 치러보니 기우라고 생각한다"며 "광주시민들의 뜨거운 양궁 열정을 직접 실감해보니 역대 최고의 성공 대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9월5-12일 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와 9월22-28일 광주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가 끝나도 '양궁 메카' 광주의 양궁 열기는 계속된다.

대한양궁협회는 10월1-3일 결승전이 열린 5·18 민주광장에서 제4회 현대자동차 정몽구배 한국양궁대회를 개최한다. 2016년 첫 대회를 치른 정몽구배는 국내 5개 실업 선수권, 기타 대학, 고등부까지 포함, 남녀 각각 80명을 선발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대회를 치르는 유서 깊은 대회다.

장 부회장은 "세계선수권대회는 태극마크를 달고 대한민국 양궁을 빛내는 자리"라며 "태극마크의 꿈을 품은 고·대·일반부 선수들도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결승전이 열린 무대에서 직접 경기를 치르며 꿈을 키우고 한국 양궁의 중심으로 성장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랑받는 廣告안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 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합의)
판결공시
제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18고합592 공무집행방해등
피 고 인 김주홍
위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등죄로 기소되었으나 공무집행방해의점은 증거없음, 상해의점은 죄가 안 됨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5. 6. 19.
판사 김 송 현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 세 금 부도어음
돈 받아 드립니다
빌려준돈 투 자 금 약 정 금 임 대 료 구 상 금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62)719-3380, 010-8678-4638

광주역앞 중흥6거리코너(중흥동712-14외2)
대형빌딩 상업지628평 지하4층지상10층
건평344평 연건평3,778평 승강기3대 주차150대
급매220억(조정가능)
공공기관,의료시설,쇼핑쎈타등
무슨 업종이던 좋은 위치입니다.
급히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나대지
야영장, 창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찾고있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문의 062)222-1095, 1096

대명OA
취/급/품/목
▫복사기 ▫컴퓨터 ▫FAX
▫레이져 및 잉크젯 프린터
▫전산소모품
▫레이져(토너/드럼)
▫카트리지
▫각종 잉크류
▫복사용지
▫팩스용지 ▫판매
▫임 대 ▫A/S
T.375-5880